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121)

등록문화재 관리 허술 ②서우봉 동굴진지
갱도·벙커·방호벽 등 다양하게 분포

입력 : 2008. 11.06. 00:00:00



▲낙반현상으로 인해 함몰 우려가 있는 서우봉 동굴진지 입구 모습.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日침략상 보여주는 특공기지로써 상징성 낙반현상 등 함몰 우려... 정비·보존해야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제309호)로 등록된 서우봉 동굴진지는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 해군 자살특공기지로 만들어졌다. 미군 등 해안으로 상륙하는 연합군 함정에 자살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것이다. 태평양전쟁에서 패전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일제는 1944년 하반기부터 비행기나 어뢰 또는 선박을 개조해 폭탄을 싣고 직접 함정에 부딪치는 특공병기를 개발한다. 특공병기는 비행기에 의한 항공특공과 진양(震洋)이나 카이텐(回天) 등을 이용한 해상특공으로 구분된다. 서우봉은 해상특공기지로 구축돼 현재 특공정이나 어뢰정을 숨겨놓기 위한 갱도가 해안가에 잘 남아있다. 하지만 서우봉 동굴진지 역시 무관심속에 훼손 방치되고 있어 정비 보존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조사결과 밝혀진 것**=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이 실시한 학술조사 결과 서우봉 동굴(갱도)진지는 해안가 갱도 18곳과 콘크리트 벙커 2곳 등 모두 20곳이 구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길이는 약 340m 규모다. 이 가운데 가장 긴 것은 입구가 3곳인 '동굴진지 1'로 약 1백m 된다. 내부 폭과 높이는 각각 2m~3m에 이를 정도로 넓고 높다. '동굴진지 1'은 제주도내 해안가에 구축된 자살특공기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곳 중 하나이자, 짜임새 있는 구조

를 보여준다. 현무암을 뚫고 만들어져 있다는 점에서 보존상태 측면에서도 양호함을 유지하고 있다. 갯도 내부에는 바위를 굴착한 흔적인 착암기 구멍과 갯목 등을 엮는데 사용됐던 '격쇠' 등이 남아있어 당시 구축실상을 엿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번 학술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벙커 2곳 역시 제주도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구조물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또한 갯도 앞부분에는 직사화기로부터 방어나, 엄폐·은폐를 위한 용도로 구축된 방호벽 시설이 잘 남아있다.

이처럼 서우봉 동굴진지는 갯도와 벙커, 방호벽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 등 자살특공기지의 구축과정과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구축시기는 제주도에 본격적으로 군사시설이 구축되기 시작한 1945년 3월 전후로, 서우봉 주변에는 108여단 예하부대가 주둔했다.

서우봉 동굴진지 구축에는 조천읍 함덕 북촌 신촌 지역 주민들이 강제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당시 국민학생을 비롯 여자들까지 동원되기도 했다고 주민들은 증언한다.

▶**실태는 어떻게**=서우봉 동굴진지는 현무암층을 뚫고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제주에 구축된 일본군 군사시설 대부분이 송이(scoria)층을 뚫은 것과는 다르다. 때문에 내부 상태는 비교적 견고함을 보여준다. '동굴진지 1'의 경우는 일본 패망 60년이 지났지만 당시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콘크리트 벙커 2곳 역시 외관과 내부는 온전한 상태를 보여준다.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서우봉 동굴진지 입구(왼쪽)와 콘크리트 벙커로 만들어진 구조물 2곳.

문제는 동굴진지 입구 부분. 대부분 입구는 오름사면으로 부터 빗물이나 토사 등이 흘러내리면서 낙반우려가 높다. 낙반현상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실제 이로 인해 입구가 막힌 곳이 2곳 있다. 벙커 또한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안가에 구축된 동굴진지는 훼손 함몰 정도가 심각하다. 대부분 동굴진지 입구뿐만 아니라 내부도 낙반으로 인해 잡석이 쌓이는 등 불량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동굴진지 외부와 내부는 해안가에서 밀려온 각종 쓰레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비 보존방안은**=제주도에는 현재 일제가 태평양전쟁 시기에 구축한 특공기지 5곳이 있다.

이 가운데 서우봉 동굴진지는 구조나 규모면에서, 또 보존상태 측면에서 일본군 특공기지를 대표하는 곳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일제 침략상을 보여주는 전쟁유적으로서 역사적 중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비 및 보존대책이 나와줘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서우봉 동굴진지 가운데 정비 및 보존 필요성이 제기되는 곳은 우선 길이 1백m에 이르는 대형 동굴진지와 콘크리트 벙커 2곳이다. 대형 동굴진지는 내부 상태가 비교적 온전하지만 입구 부분은 낙반현상으로 인한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벙커형 구조물 역시 입구와 주변에 대한 잡목제거 등 정비와 함께 보존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서우봉 동굴진지 진입부에 글과 도면 사진 등을 넣은 안내문을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들도 서우봉 및 사라봉 동굴진지 등 근대문화유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역사교육의 장으로 보존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낸바 있어 당국의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미니해설 / 서우봉 동굴진지는?]진양특공부대 주둔용으로 구축

태평양전쟁 말기 제주도에 진주하거나 진주예정인 일본 해군 특공병기는 진양(震洋) 회천(回天) 교룡(蛟龍) 해룡(海龍) 등 4종류다. 특공병기를 감추기 위한 기지는 서우봉해안을 비롯 송악산 해안, 수월봉해안, 삼매봉해안, 일출봉해안 5곳에 구축됐다. 서우봉해안은 바로 회천대기지로 구축된 것으로 보이나 일본이 패망하면서 실제 특공부대가 주둔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수월봉과 삼매봉, 일출봉해안에는 진양특공부대가 주둔했으며, 그 수는 약 5백60명 정도 됐다.

진양은 베니아판으로 조립한 작은 배에 자동차 엔진을 장착한 소형 고속보트로 1형(一型)과 5형(五型)이 있다. 앞부분에 약 250kg의 폭탄을 탑재하고, 탑승원이 탄 채 당시로서는 고속의 23노트(시속 약 43km)로 달려 적함정에 부딪쳐 격침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